



찬송가 559장

추석

가정예식

찬송가 383장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신앙고백 다 함 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다 함 께



1. 사철 에 봄바람 불어잇 고 하나님 아버지 모 션으 니
2. 어버 이 우리를 고이시 고 동기를 사랑에 뭉 쳐잇 고
3. 아침 과 저녁에 수고하 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 가



믿음 의 반석도 든든하 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 라
기쁨 과 설움도 같이하 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 라
한상 에 둘러서 먹 고마 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 라



고마워 라 임마누 엘 에 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라 임마누 엘 복 되고 즐거운 하루하 루

기 도 가족 중에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명절을 맞아 잠시 멈추어 서서 지난 시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회고하며 가족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이웃들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정책이나 사회적인 노력들 속에서도

하늘 아버지이신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서로 나누고 돌보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비옵기는 우리가 그저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먼저 영적인 풍성함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의 계절을 맞아 풍성한 자연의 결실을 바라보며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여 형통하게 되었음을 깨닫고,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에 상응하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주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의 신분을 지켜가고, 맡겨진 과제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봉독 자녀 중에서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설 교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설 교 자

찬 송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다 함 께



1. 눈을 들 어 산을 보 니 도움 어 디 서오 나
2. 도우 시 는 하나님 이 네게 그 들 되시 니



천지 지 은 주하 나 뵈 나를 도 와 주시 네
낮의 해 와 밤의 달 이 너를 상 치 않겠 네



나의 발 이 실족 앞 게 주가 깨 어 지키 며
네게 화 를 주지 않 고 혼을 보 호 하시 며



택한 백 성 항상 지켜 길이 보 호하시 네
너의 출입 지금 부터 영영 인 도하시 리 아 멘

주의기도 다 함 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교 제목: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 날입니다. 추석은 단순한 풍습의 날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그리 평안하지 않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불안한 일들이 많고, 세계의 변화는 너무나 급속하여 우리의 마음을 혼듭니다. 가정마다 나름의 어려움과 염려가 있고, 자녀들의 앞날도 불확실해 보입니다.

이번 추석에 우리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뜻을 살피고, 우리 가정이 붙들어야 할 신앙의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1. 고난 속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연과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자기 백성을 향한 선한 계획을 품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우리 삶에도 때로는 고난과 불확실함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여기서 '평안'은 단순한 안락이 아니라 살롬, 곧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강을 뜻합니다. 건강, 행복, 형통, 구원을 포함하는 완전한 안녕(安寧)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요 14:27). 불안과 두려움 대신,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활을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3.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 속에서 미래를 꿈꾸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그 도성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무리 불확실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정마다, 자녀 세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희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확실한 약속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굳게 붙들시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설 튼튼한 반석이시며,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고, 우리가 따를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을 발견하고 삶의 이정표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추석
가정예식

한국기독교
장로회 상육중앙교회